

강촌

젊음, 낭만, 그리고 추억!

옛 경춘선은 북한강변과 나란히 달리며 낭만을 선사하였다.

그리고 기차가 강촌역에 다다르면

청춘은 모두 이곳에서 내렸다.

1970~80년대 젊은이라면 누구나 강촌에 대해

추억 하나쯤은 품고 있을 정도로 강촌은 '청춘의 성지'였다.

연인과 데이트 코스로, 친구들과 MT 장소로

늘 유품으로 꽂아지던 장소였기 때문이다.

그래서 강촌은 언제나 젊음으로 북적였으며,

지독하게 낭만적인 공간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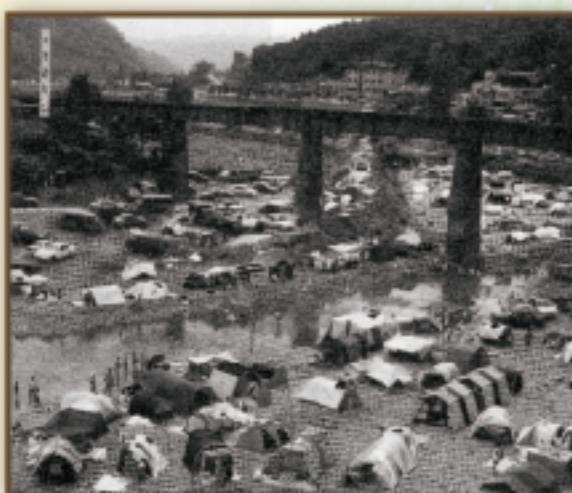


오늘



1. 문배마을
2. 강촌상상역(옛 강촌역)
3. 억새밭

어제



1. 강촌천의 강촌유원지 텐트 1994년 7월, 사진 김길소(불내소식지 328)
2. 시人寿이크
3. 옛 강촌유원지(춘천백년사, 1996)
4. 옛 강촌역(1950년대, 사진 이광현)

